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4. 1.(화)

민관이 힘을 합쳐 통상위기 총력 대응 나선다

- 민관 네트워크 총결집하고, 국가적 역량 총동원하여 통상위기 대응 -
- 4대 그룹 및 경제안보관계장관 등과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화)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민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되었다.

○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에 대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을 약속하였다.

□ 이날 4대 그룹 회장들은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또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211
		담당자	사무관	권회근	044-200-2212
		담당자	사무관	이정우	044-200-2227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562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서기관	정지선	044-203-56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